

23. 삼별초(三別抄)의 격전장(激戰場) 동제원(東濟院)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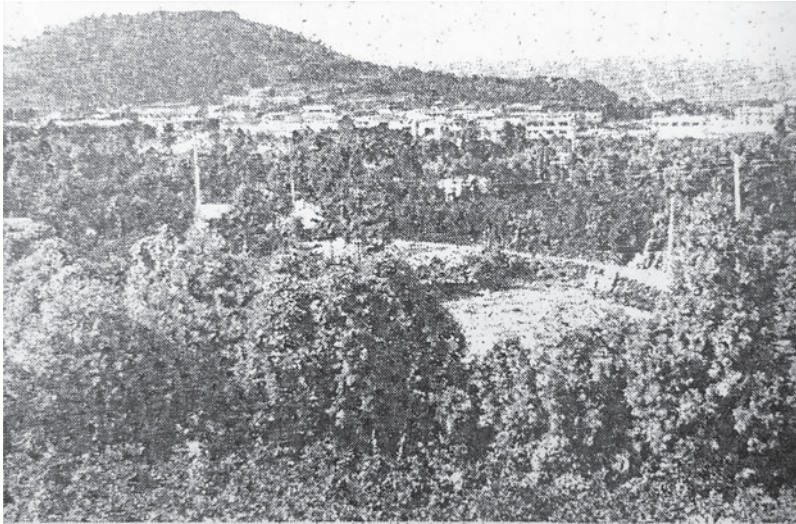
- ◎ 동제원(東濟院) 들은 시신(屍身)과 피로 물들어
- ◎ 고여림(高汝霖) · 김수(金須) 등도 전사(戰死)하고
- ◎ 격전(激戰) 끝에 승리는 이문경(李文京)의 삼별초(三別抄)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보면 동제원(東濟院)은 “제주의 동쪽 9리에 있으며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문경(李文京)의 군사가 진을 쳤던 곳”이라고 되어 있다. 『탐라지(耽羅志)』나 『읍지(邑誌)』 등도 거의 같은 내용이 있을 뿐 그 밖의 자세한 설명이 없다.

동제원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널리 ‘동주원’으로 알려진 곳이다. 위의 기록처럼 제주의 동쪽 조천(朝天) 쪽을 향해서 별도교(別刀橋)를 지난 바로 그 일대를 말한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동주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거의 잊혀지고 말았다.

46) 『한라일보』 제130호 (1989. 09. 23).



17백여 년 전 삼별초(三別抄)와 고려(高麗) 관군(官軍)이 치열한 혈전(血戰)을 벌였던 동제원(東濟院) | 지금은 어디에도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다.

관군(官軍)이 먼저 진주(進駐)

동제원 전투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 등에서 볼 수 있는 「성주왕자전(星主王子傳)」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는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온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알지만 여기서는 이 자료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삼별초(三別抄)의 군사를 이끌고 제주도에 진주하기 이전인 1270년(원종 11) 9월 고려 관군은 영암부사(靈岩副使) 김수(金須)에게 군사 2백을 내주어 탐라에 들어가게 하였고 이어 장군 고여

림(高汝霖)에게도 군사를 거느려 탐라를 지키게 하였다. 이것은 장차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도록 한 조치였다.

명월(明月) 들서 첫 교전(交戰)

한 발짝 먼저 들어온 김수 부사는 탐라의 성주(星主) 고인단(高仁旦)과 왕자(王子) 문창우(文昌佑) 등과 협의하여 해안에 독을 쌓는 등 방어시설에 주력했다. 이 해안의 독은 그 뒤 삼별초에 의해서도 더 증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환해장성(環海長城)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김수 부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탐라에 들어온 사실을 알자 삼별초에서도 대응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선봉장으로 선발된 사람이 이문경이었다.

그는 그해 11월 3일 삼별초의 선봉대를 이끌고 명월포(明月浦)로 상륙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김수 부사는 곧 대항군을 편성하였다. 진무(鎭撫) 김유성(金有星)을 대장으로 문창우를 중군(中軍)으로 삼아 명월로 출동하였다. 이때 「성주왕자전」에는 군사 1만과 기병(騎兵) 5천을 거느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과장된 병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명월 들에서 양군의 첫 전투가 벌어졌다. 전기에 따르면 이때 김수와 이문경 두 장수가 진전에서 직접 맞붙어 싸운 것으로 되어 있다. 두 장군이 치열하게 맞싸우다가 김수의 휘두른 칼에 이문경의 투구가 벗겨지면서 말에서 떨어졌다.

진자화(陳子和), 곽연수(郭延壽)의 대결(對決)

이때 삼별초의 진중에서 이열(李烈)이 뛰어나와 문경을 구하고 김수와 겨루게 되었다. 그도 몇 차례 싸우던 끝에 말에서 떨어져 진중으로 도망하였다. 이날 싸움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다음날 싸움은 전세가 일변했다. 이문경과 김수는 전일의 승부를 결판짓기 위해 다시 맞붙어 싸웠다. 이번에는 이문경의 칼솜씨가 날래어 김수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날 싸움에서 관군이 패하자 상황이 불리한 것을 판단하고 징을 울려 관군을 후퇴시키게 되었다. 이 명월 전투에서 이문경과 김수 두 장군이 맞붙어 싸웠다는 것은 정사에는 없는 기록으로 매우 의심스럽다.

명월 전투에서 패퇴한 관군은 동제원에 본진을 구축하고 여기서 결전 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전기에는 장군 고여림이 전선 50여 척에 군사 7천을 거느리고 화북포(禾北浦)에 도착하였다고 했는데 7천의 대군을 거느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동제원을 중심으로 베릿내(별도천(別刀川))에서부터 송담천(松湍川)에 걸쳐 벌어졌던 이 싸움은 양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치절한 혈전이 되었다.

이때 관군의 진자화(陳子和)는 검술에 매우 뛰어난 장수였다. 늘 선봉장이 되어 삼별초의 진중으로 쳐들어가 용감하게 싸웠으며 삼별초의 장수 곽연수(郭延壽)와 겨루어 그를 베어 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삼별초에는 이문경을 비롯하여 너무나 날랜 용사들이 많았다. 그는 다시 쳐들어가다가 삼별초의 한 군사가 휘두른 칼에 맞고 쓰러졌다.



동제원 | 제주시 화북동 소재. 북쪽으로 별도봉이 의연하고 그 오른편에 오현중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자취도 없어져

그의 죽음은 관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지게 한 반면 삼별초의 기개를 더욱 드높여 주었다. 삼별초는 처음부터 날래고 용감한 장정들로 선발 편성된 부대였으므로 관군보다는 뛰어나게 잘 싸웠다.

관군은 송담천까지 밀려났지만 죽기를 결심하고 끝까지 싸웠다. 이 싸움에서 장군 고여림, 부사 김수도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최후의 혈전 끝에 결국 관군은 전멸하였다.

베릿내와 송담천을 낀 동제원 들은 양군 병사들의 시신으로 덮이고 피로 물들었다. 참으로 처절한 참상을 남기고 전투는 끝났다. 이 동제원의 싸움은 제주도의 전사상 드물게 보는 큰 전투의 하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동제원 전투는 또 삼별초의 승리로 끝나면서 삼별초의 전 병력이 제주도에 들어와 여원군(麗元軍)을 상대로 항쟁하는 역사적 전기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 7백여 년이 지난 이 동제원 일대는 옛 전장을 말해줄 어떤 유적도 또 기념할 만한 비(碑)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대신 이 일대에는 화북공업단지(禾北工業團地)가 들어서 동제원의 내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시대무상을 느끼게 한다.